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ypes of Family Systems, Marital Conflicts and Coping Strategies

수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崔 圭 蓮

Dept. of Home Management

Suwon University

Associate Prof. : Kyu Reon, Choi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부가 지각하는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와 근교에 거주하는 532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부 양방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높은 편이고 부인이 남편보다 가족응집성을 더 높게 지각한다. 가족체계 유형은 HH 가족이 47.9%, LL가족이 35.1%이며, 교육수준, 직업, 결혼기간, 종교일치여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부인이 남편에 비해 갈등정도가 더 높고 신앙에 의지, 외부도움 요청, 감정표출, 회피 등의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한다.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을수록 부부 양방에서 부부간 갈등정도가 낮고 이성적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며 행동표출, 회피 등의 대처방안은 적게 사용한다. 따라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부부 공통적으로 부부간 갈등정도 및 이성적 대처, 행동표출, 회피 등의 대처방안과 선형적 관계를 보인다. 또한 가족의 응집성은 부부 공통적으로 감정표출의 대처방안과도 선형적 관계를 보인다. 가족체계 유형중 HH가족과 LL가족에서 역시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처방안 사용이 각각 차이를 보인다.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가족은 가족원에게 애정과 행복의 근원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긴장과 갈등문제를 일으키는 측면도 있다. 핵가족이 대부분인 현대 가족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건설적으로 해결될 때 부부사이에 이해도가 증진되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지만, 해결방법에 문제가 있을때는

갈등과 불화가 심화되어 가족체계의 균형이 깨지고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원만한 결혼 생활과 건전한 가족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라 최근 체계론적 관점에서 부부간의 갈등해결을 돕는 부부/가족 치료상담이 각광받고 있고 임상과 가족연구에서도 체계론적 관점을 적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 연구에서도 체계론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가족치료자들과 가족학자들은 가족체계를 진단하고 분류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가족체계를 유형화하여, 이를 기초로 가족원간 역동관계를 연구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Olson, Sprenkle, Russel(1979)이 제안한 가족체계 유형을 적용하여 주로 청소년 자녀의 비행이나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하였고(박초아, 1989; 민하영, 1991; 최연실, 1993; 이숙현·민혜영, 1992; 전귀연·최보가, 1993; 조은경·서병숙, 1994), 부부관계에서는 부인이 지각한 권위유형과 성역할태도(안선영, 1994)와 중년기 부인의 생활만족도(박경숙, 1993), 부부간의 의사소통(유순덕, 1987; 안양희, 1987; 김수연·김득성, 1993), 가족스트레스와 대응책략(정민자, 1992)등을 연구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선행연구들(박영옥·한상순, 1987; 최규련, 1990; 송팔희, 1990; 정민자, 1992)에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부가 다른 부부보다 낮은 결혼만족도와 높은 갈등수준을 보였고, 만족도와 갈등, 대처방안 등에서 남편과 부인간에 지각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을 파악하고, 성별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임상가족과 정상가족의 부인이 지각한 가족스트레스와 자원, 대응책략에 대한 연구(정민자, 1992)에서 가족체계 유형을 적용하여 갈등과 대처방안을 부분적으로 다룬 것 외에는 정상가족의 부부 양방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부부 각자의 갈등과 대처방안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성별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청소년 자녀를 둔 부부와 그 가족을 이해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본 연구가 실시되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편과 부인이 지각하는 가족응집

성과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편과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에 따라 부부 각자가 지각하는 부부간 갈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른 부부의 갈등 대처방안은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5〉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부부가 지각하는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은 각각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체계 유형

Olson등(1979)이 제안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가족체계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가족 응집성(Family Cohesion)은 가족원 상호간에 지니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된다. 측정 내용에는 정서적 유대, 외부 환경이나 하위체계들간의 경계, 연합정도와 대상, 가족 공동 또는 사적인 시간 및 공간의 허용, 가족공동 또는 개인적인 친구의 인정, 의사결정 유형, 가족공동 또는 개인적인 관심사와 오락활동 등이 있다. 응집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부터 속박(enmeshed), 연결(connected), 분리(seperated), 유리(disengaged)의 네차원으로 구분된다.

가족 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은 가족체계가 상황적·발달적 요구에 반응하여 권력과 역할구조, 관계성과 규칙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측정내용은 의견주장, 통제, 부모의 자녀지도, 가족원간 협상, 역할관계와 분담, 가족규칙의 융통성 등이 있다. 변화정도가 높은 수준부터 혼돈(chaoitic), 융통적(flexible), 구조적(structured), 경직(rigid)의 네 차원으로 구분된다.

2) 가족체계 유형

원래 Olson등(1979)은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사용하여 응집성과 적응성이 중간수준에 있는 균형가족(Balanced Family)이 가장 기능적이고,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양쪽 극단에 위치하는 극단가족(Extreme Family)은 가장 역기능적이라고 하였는데 이 모델은 임상가족과 정상가족을 잘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다 (Anderson, 1986 ; 유순덕, 1987 ; 정민자, 1992).

그러나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최적의 가족기능과 선형적 관계를 보인다고 하고 순환적 모델에 기초한 유형구분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으며(Beaver & Voeller, 1983 ; Miller, Epstein, Bishop & Keitner, 1985 ; Smith, 1985 ; Cohen & Will, 1985), 순환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상 문제로서 표집방법, 유형 구분방법, 척도의 타당성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Farrel & Barnes, 1993). Olson(1989)도 문제가족이 아닌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가족기능과 선형적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최근 Olson(1991)은 집단의 명명을 수정하여 응집성 수준에 따라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연결된 가족으로, 적응성 수준에 따라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인 가족으로 분류하였고, 정상가족 분류를 위한 4분면의 가족체계 유형을 제안한 바 있다(Lavee & Olson, 1991). 4분면의 가족체계 유형은 응집성과 적응성 각각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4가지로 조합되며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낮은 유형(LL가족), 응집성이 낮고 적응성이 높은 유형(LH가족), 응집성이 높고 적응성이 낮은 유형(HL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유형(HH가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응집성이나 적응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기능적으로 나타나 선형적 관계를 보고한다(박초아, 1989 ; 최연실, 1993 ; 김수연·김득성, 1993 ; 박경숙, 1993 ; 민하영, 1991 ; 전귀연·최보가, 1993). 한편 4분면의 가족체계 유형을 적용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로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HH가족에서 가족관계나 가족원의 심리적 기능이 가장 긍정적이며,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낮은 LL가족에서 역기능적인 면이 많다고 보고된다(박경숙, 1993 ; 전귀연·최보가,

1993 ; 김수연·김득성, 1993 ; Lavee & Olson, 1991).

2.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체계 유형의 배경변인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안양희, 1987)에서 경제수준, 교육수준, 종교에 따라 가족체계 유형이 차이를 보여서, 경제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거나 종교가 있는 가족이 응집성과 적응성이 더 높다고 보고된다.

2)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

부부간 갈등은 부부가 가정생활 중에 배우자와의 사이에 겪는 긴장·갈등이다. 우리나라의 부부들은 대체로 성격차이,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며, 그밖에 경제문제, 성생활, 친가 및 인척관계, 자녀지도, 배우자의 나쁜 습관, 가사분담 등에 대해 배우자와 갈등을 느낀다고 한다. 관련 변인으로 교육수준, 소득, 남편과 부인의 직업, 가족생활주기 등이 보고된다(박영옥·한상순, 1987 ; 김양희, 1986 ; 송말희, 1990 ; 김갑숙·최외선, 1992).

갈등 대처방안은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대처방안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즉 이성적 대처, 말다툼, 폭력(Strauss, 1979), 회피, 건설적인 싸움, 파괴적인 싸움, 위협과 복종, 역할수정, 협상(Rice, 1979), 충고 구하기, 감정표출, 협상, 체념, 선택적 무시(Pearlin & Schooler, 1978), 문제중심 접근과 감정중심 접근(Elman & Gilbert, 1984), 능동적 대처, 수동적 대처, 신비적 대처(Folkman & Lazarus, 1980), 내적 대처와 외적 대처(McCubbin, et al., 1982), 합리화와 부정, 회피와 억압, 외부도움요청, 적극적 행동(송말희, 1990) 등이 있다. 관련변인으로 성별, 갈등 정도, 교육수준, 소득 등이 보고된다(송말희, 1990 ; 정민자, 1992).

3)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의 관계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을 가족체계 유형과 관련시킨 연구는 극히 적다. 정민자(1992)는 임상가

족과 정상가족 모두 부부생활 문제로 인한 부인의 긴장이 순환모델에 기초한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극단가족이 긴장정도가 가장 높고 균형가족은 긴장정도가 가장 낮으며, 대처방안은 가족체계 유형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Lavee와 Olson(1991)은 4분면의 가족체계 유형중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HH가족의 남편과 부인이 긴장이 적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와 근교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르게 분포되고 청소년 자녀의 성과 연령이 균등하도록 고려하여 성북구의 K여중과 K중, 서대문구 S중의 남녀 학생, 강서구의 J여고, 영등포구의 S실업고, 서초구의 S고교, 강남구 K중의 남녀 학생, 강동구의 J고교와 Y여고, 서울 근교시에 소재한 S여고 등 중학교 학생 300명과 고등학교 학생 357명 도합 657명이 선정되었다.

청소년 자녀를 둔 50쌍의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해당학교 교사를 통하여 부모가 동거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정하여 질문지 봉투를 학생에게 배포하고 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다시 학생을 통해 회수하였다. 신뢰성있는 조사를 위해 남편용 질문지와 부인용 질문지를 각각 봉투에 넣고 부부가 상의하거나 보여주지 말고 직접 질문지에 응답하고 봉투에 넣어 봉합하게 하였다. 본 조사는 1994년 6월 17일에서 7월 2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657쌍의 부부에게 질문지를 배부해서 617부가 회수되었고 부부 한쪽이 누락된 것과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시켜 532쌍의 부부가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2. 조사도구

1)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등

(1982)이 개발한 척도(FACES II :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조사시 응집성을 측정하는 문항 16개, 적응성을 측정하는 14개 문항으로 되어있었으나 신뢰도 분석결과 남편용과 부인용 척도에서 공통적으로 적응성 문항 중 1개 문항이 신뢰도가 낮아 제외시켜서 남편용과 부인용 척도가 각각 응집성 16개 문항과 적응성 13개 문항으로 되었다.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 검증결과 부인의 응집성 척도와 적응성 척도가 α 값이 .89, .83이며 남편의 응집성과 적응성 척도는 α 값이 각각 .87, .84 이다.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부부간 갈등

부부간 갈등 척도는 Olson, Fournier, Druckman (1982)의 ENRICH, 박영옥과 한상순(1987), 송말희(1990), 김갑숙과 최외선(1992)의 척도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부인용 척도는 총 39문항이고 남편용은 총 38문항이다. 주요인 분석과 사각회전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부인용 척도는 '성생활과 대화', '성격차이', '시가와의 관계', '경제문제', '자녀지도', '남편의 나쁜 습관', '친정과의 관계', '가치관 차이'의 8개 갈등 영역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의 Cronbach's α 계수는 .70~.88 이다.

남편용 척도는 '성격차이', '남편의 나쁜 습관', '처가와의 관계', '성생활', '본가와의 관계', '자녀지도', '대화문제', '경제문제' 등 8개 갈등영역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의 Cronbach's α 계수는 .79~.91이다. 부부간 갈등의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남편과 부인의 Cronbach's α 값이 각각 .95, .95이다.

3) 갈등 대처방안

대처방안 척도는 McCubbin, Larson, Olson 등 (1982)의 가족 대처전략 척도(F-Copes)와, Folkman과 Lazarus(1980), 송말희(1990) 등의 척도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부인용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요인분석 결과 '외부도움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표출', '행동표출', '회피'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70~.89 이다. 남편용 척도는 총 26개 문항으로 요인분석 결과 '외부 도움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 표출', '회피와 행동표출'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고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값이 .76~.88 이다.

갈등과 대처방안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많고 대처방안을 많이 수용함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일반적 경향을 알기 위하여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차이검증을 위해 t-test와 pai-

red t-test, χ^2 -test, 일원변량분석(ANOVA)과 Scheffe-test, 다변인 변량분석(MANOVA)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평균 연령은 부인이 만 41.24세, 남편이 45.14세이고 평균 결혼기간은 17.94년이며, 평균 자녀수는 2.40명, 월평균 가족 소득은 205.19만원이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부 인	남 편	구 분		부인·남편	
		N (%)	N (%)			N (%)	
연 령	39세 이하	69 (35.0)	26 (9.0)	결 혼 형 태	초 혼	512 (96.2)	
	40-49세	448 (62.4)	427 (76.3)		재 혼	20 (3.8)	
	50세 이상	14 (2.6)	78 (14.7)		중매혼	242 (45.6)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157 (29.7)	85 (16.2)	결 혼 과 정	연애혼	222 (41.7)	
	고 졸	235 (44.5)	182 (34.7)		절충혼	67 (12.6)	
	대졸이상	136 (25.8)	258 (49.1)		가 족 형 태	핵가족	443 (83.3)
직 업	주부/무직	383 (72.5)	4 (0.8)	만자녀 단 계	확대가족	89 (16.7)	
	노동·생산직	27 (5.1)	45 (8.5)		중학생기	151 (28.4)	
	기능·판매직	22 (4.2)	59 (11.1)			고교학생기	256 (48.2)
	자영업	51 (9.7)	174 (32.9)			대학생기	75 (14.1)
	사무직	13 (2.5)	142 (26.9)			성인자녀기	41 (7.7)
	전문기술직	26 (4.9)	22 (4.2)		기혼자녀기	8 (1.5)	
	관리직	2 (0.4)	61 (11.5)		가족의 월평균 소 득	100만원 이하	67 (12.7)
	전문직	6 (1.1)	22 (4.2)			101-150만원	79 (15.0)
종 교	없 음	115 (21.7)	207 (39.4)	151-200만원		159 (30.1)	
	불 교	137 (25.8)	125 (23.8)	201-250만원		80 (15.1)	
	기독교	174 (32.8)	132 (25.1)	251-300만원	93 (17.6)		
	천주교	92 (17.3)	55 (10.5)	301만원 이상	60 (9.5)		
	기 타	13 (2.4)	7 (1.3)				

표 2. 부부가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구 분	응 집 성				적 응 성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Paired t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Paired t
부 인	63.14	9.75	23-80	3.25***	48.43	7.92	22-65	1.93
남 편	61.76	9.40	22-80		47.71	7.61	20-65	

*p<.05 **p<.01 ***p<.001

2.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의 일반적 경향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일반적 경향을 보면 (표 2) 부인과 남편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은 가능점수와 비교하면 모두 평균이 높은 편이다. 부인이 남편보다 응집성을 더 높게 지각하나($p < .001$), 적응성은 부부간에 차이가 없었다.

4분면의 가족체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부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각각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LL가족은 35.1%, LH가족은 6.8%, HL가족은 10.2%, HH가족은 47.9%이었다. 이중 LL가족과 HH가족은 안선영(1994)의 30.2%, 41.1%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척도나 연구대상이 본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 같다.

가족체계 유형은 결혼기간($p < .01$), 교육수준($p < .001$), 종교일치 여부($p < .001$), 초혼 재혼 여부($p < .05$), 남편의 직업($p < .05$)과 부인의 직업($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에 종교가 일치될 때, 초혼일때, 남편이 전문직·관

리직종에 근무할때, 부인이 주부 또는 전문기술직·관리·전문직에 근무하는 경우 HH가족 비율이 높다. 반면 결혼기간이 길수록, 부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간에 종교가 불일치할때, 재혼한 경우, 부인이 생산직·기능직·판매직에 종사할때, 남편이 노동·생산직에 종사할때 LL가족의 비율이 높다. 이는 부인을 대상으로 한 안선영(1994)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된다. 한편 가족형태, 결혼과정, 부부의 연령, 자녀수, 소득별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3.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의 일반적 경향

남편과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간 갈등 점수를 5점기준으로 비교한 결과(표 3) 전반적으로 갈등정도가 중간이하이고 부인이 남편보다 유의하게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였다($p < .001$). 갈등의 하위 영역에서도 본가/시가와와 관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갈등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많은 연구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결혼생활에 덜 만족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일한 결혼생활을 하는 남편과 부인이라도 그에 대한 지각과 기대

표 3.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의 일반적 경향

변 인	부 인		남 편		Paired-t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부부간 갈 등	성생활과 대화	2.20	0.89	1.96	0.86	5.96***
	성격 차	2.45	1.00	2.08	0.83	7.56***
	시가/본가	2.01	0.91	1.98	0.94	0.84
	친정/처가	2.08	0.98	1.73	0.71	8.14***
	시가/처가	2.01	0.91	1.72	0.70	6.33***
	자녀 지도	2.37	0.90	2.14	0.77	5.63***
	나쁜 습관	1.80	0.74	1.62	0.62	5.91***
	경제 문제	2.20	0.79	1.92	0.71	8.13***
	전체 갈등	2.14	0.68	1.93	0.59	7.08***
대 처 방 안	신앙에 의지	2.32	1.16	1.78	0.95	10.99***
	이성적 대처	3.87	0.77	3.82	0.76	1.28
	행동표출	1.69	0.65	2.12	0.70	-12.18***
	외부도움요청	2.27	0.78	2.05	0.80	5.12***
	감정표출	2.59	0.88	2.36	0.82	4.82***
	회 피	2.56	0.95	2.12	0.70	9.89***

* $p < .05$ ** $p < .01$ *** $p < .001$

등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갈등정도가 높은 하위영역을 보면 부인들은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을 가장 많이 겪고 자녀지도, 성생활과 대화, 경제문제, 친정과의 관계의 순으로 남편과 갈등을 많이 느낀다. 남편들은 자녀지도에 대해 부인과 갈등을 가장 많이 겪으며 부인과의 성격차이, 본가와의 관계, 성생활과 대화, 경제문제의 순으로 부부간 갈등을 많이 느꼈다. 이 결과에서 부부가 공통적으로 성격차이, 자녀지도, 성생활과 대화, 경제문제로 인해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은 선행연구(박영옥·한상순, 1987; 송말희, 1990; 김갑숙·최희선, 1992)와 거의 일치된다. 그런데 갈등정도가 높은 순위에서 자녀지도와 본가와의 관계에 대해 남편이 부인보다 더 앞선 것은 새로운 결과인데 이는 남편이 부인에 비해 부부간의 유대관계 보다 부모역할이나 아들과 며느리역할에 더 비중을 두는 데서 비롯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없기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갈등 대처방안의 사용정도를 보면 부부 모두 중간

이하였고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인이 남편보다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p < .001$). 한편 이성적 대처방안의 사용정도는 부부간에 차이가 없었고, 행동표출은 남편들이 부인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였다. 사용빈도가 높은 대처방안은 부부 공통적으로 이성적 대처이며 감정표출이나 회피방안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은 종교일치 여부($p < .001$), 초혼·재혼 여부($p < .05$), 교육수준($p < .01$) 등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여서 종교가 일치할때, 초혼일때, 교육수준이 높을때 부부간 갈등이 적고 이성적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다.

4.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른 부부간 갈등

Olson등(1991)이 제안한 방법대로 응집성과 적응성 점수를 각각 네집단으로 구분하여 응집성은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연결'로, 적응성은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으로 명명하고 각 집단별로 부부간 갈등을 분석한

표 4.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른 부인의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

변 인	응 집 성					적 응 성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연결	Univariate F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융통적	Univariate F
N	80	171	208	67		83	150	210	83	
성생활과 대화	2.92	2.55	1.91	1.43	60.84***	2.89	2.37	2.01	1.59	37.47***
부 성격 차	3.11	2.81	2.19	1.66	42.10***	3.14	2.67	2.23	1.87	29.96***
부 나쁜 습관	2.50	2.05	1.49	1.23	67.92***	2.38	1.96	1.58	1.29	44.29***
간 경제 문제	2.87	2.47	1.93	1.53	60.38***	2.83	2.35	2.01	1.65	41.66***
자녀 지도	2.98	2.62	2.11	1.79	31.33***	2.87	2.56	2.17	1.88	22.33***
갈 시가 관계	2.67	2.13	1.89	1.52	21.32***	2.40	2.08	1.91	1.65	9.95***
등 친정 관계	2.66	2.31	1.90	1.51	21.54***	2.53	2.24	1.87	1.77	12.39***
가치관 차	2.89	2.55	1.94	1.54	61.77***	2.83	2.35	2.04	1.70	34.16***
	Multivariate Pillais F=9.39***					Multivariate Pillais F=6.38***				
전체 부부간 갈등	111.31	94.55	74.14	58.35	92.42***	108.08	89.01	77.12	64.35	52.08***
신앙에 의지	2.39	2.44	2.40	1.99	2.43	2.24	2.45	2.42	2.15	1.43
대 이성적 대처	3.26	3.74	4.07	4.33	31.29***	3.35	3.70	4.01	4.49	37.34***
처 행동표출	2.06	1.85	1.54	1.28	25.82***	1.94	1.87	1.58	1.27	21.63***
방 외부도움요청	2.41	2.44	2.20	2.02	6.17***	2.39	2.38	2.23	2.12	2.57
안 감정표출	2.88	2.65	2.55	2.38	4.03**	2.77	2.67	2.57	2.41	2.45
회 피	3.03	2.74	2.41	1.93	20.03***	2.98	2.66	2.44	2.13	11.81***
	Multivariate Pillais F=8.49***					Multivariate Pillais F=7.67***				

* $p < .05$ ** $p < .01$ *** $p < .001$

표 5.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른 남편의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

변인	응집성					적응성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연결	Univariate F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융통적	Univariate F	
N	83	151	222	66		74	156	209	83		
성생활	2.73	2.07	1.75	1.30	50.59***	2.57	2.21	1.73	1.50	33.48***	
부대화	2.89	2.59	2.05	1.64	42.51***	2.86	2.51	2.13	1.77	28.62***	
부성격차	2.82	2.27	1.83	1.46	57.68***	2.72	2.26	1.90	1.55	44.29***	
간나쁜습관	2.11	1.73	1.44	1.24	39.23***	2.15	1.65	1.53	1.26	33.15***	
경제문제	2.57	2.06	1.70	1.44	52.33***	2.43	2.09	1.75	1.53	30.68***	
갈자녀지도	2.82	2.24	1.97	1.54	47.01***	2.78	2.20	2.03	1.74	28.28***	
등본가관계	2.54	2.06	1.85	1.45	19.36***	2.46	2.10	1.85	1.60	12.96***	
다가관계	2.22	1.84	1.54	1.45	25.36***	2.16	1.85	1.59	1.44	19.29***	
	Multivariate Pillais F=9.65***					Multivariate Pillais F=7.02***					
전체 부부간 갈등	98.53	79.53	66.76	54.13	81.03***	95.68	79.89	68.67	57.92	52.42***	
대처방안	신앙에 의지	1.93	1.74	1.75	1.75	.84	1.87	1.71	1.83	1.70	.84
	이성적 대처	3.29	3.60	3.96	4.54	49.09***	3.33	3.58	3.97	4.41	40.84***
	회피·행동표출	2.62	2.30	1.98	1.58	38.34***	2.59	2.25	2.05	1.69	26.36***
	외부도움 요청	2.30	2.09	2.03	1.88	3.64*	2.15	2.14	1.97	2.02	1.59
	감정 표출	2.74	2.47	2.27	2.00	12.07***	2.65	2.46	2.28	2.14	5.99***
	Multivariate Pillais F=11.63***					Multivariate Pillais F=9.48***					

*p<.05 **p<.01 ***p<.001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5).

1) 가족의 응집성에 따른 부부간 갈등

부부 모두 가족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모든 하위영역과 전체의 갈등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p<.001). 또한 갈등의 각 영역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작용하여서 특히 부인집단은 남편의 나쁜 습관, 가치관 차이, 성생활·대화, 경제문제 등의 갈등에서 응집성 수준별 차이가 더 현저했고, 남편은 성격차, 경제문제, 성생활, 자녀지도에 대한 갈등에서 응집성 수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2) 가족의 적응성에 따른 부부간 갈등

부부 모두 가족의 적응성에 따라 하위영역과 전체의 갈등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즉 적응성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갈등정도가 가장 높고, 적응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갈등정도가 가장 낮았다. 하위 집단별 차이검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서 가족의 적응성과 부부갈등은 선형적 관계로 밝혀졌다. 또한 갈등의 하위영역별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부인집단은 남편의 나쁜

습관, 경제문제, 성생활과 대화 등의 갈등에서 적응성 수준별 차이가 크며, 남편집단은 성격차, 성생활, 자신의 나쁜 습관, 경제문제 등의 갈등에서 적응성 수준별 차이가 현저하였다. 이는 응집성별 결과와 유사한데 선행연구가 없어 일반화를 위해 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결과만으로 볼 때 남편과 부인이 자각한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은 부부간 갈등과 각각 역방향의 선형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5.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른 부부의 대처방안(표 4, 5)

1) 가족의 응집성에 따른 부부의 대처방안

부부 모두 신앙에 의지하는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대처방안이 응집성 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변인 변량분석 결과 여러 대처방안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으며 이성적 대처, 행동표출과 회피, 감정표출 등의 사용정도에서 응집성별 차이가 더 현저하였다. 즉 이성적 대처방안은 매우 연결된 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과잉분리 집단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반면 행동표출과 회피, 감정표출 등은 매우 연결된 집단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고 과잉분리 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서 선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Lavee & Olson, 1991)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외부도움 요청은 부부 공통적으로 매우 연결된 집단에서 적게 사용되거나 부인의 경우는 분리집단에서, 남편의 경우는 과잉분리 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서 약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더 연구가 필요하다.

2) 가족의 적응성에 따른 부부의 대처방안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라 부인의 경우 이성적 대처, 행동표출, 회피방안 등이 차이를 보이고, 남편의 경우는 이성적 대처, 회피·행동표출, 감정표출 방안이 차이를 보였다($p < .001$). 즉 부부 공통적으로 매우 융통적인 집단에서 이성적 대처방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회피나 행동표출은 가장 적게 사용한다. 반면 경직된 집단에서 이성적 대처방안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회피나 행동표출은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러 대처방안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으며 그중 적응성 수준별 차이가 가장 현저한 것은 이성적 대처이고 다음으로 회피·행동표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하위집단별 검증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성적 대처와 회피·행동표출 등의 대처방안은 가족의 적응성과 선형적 관계로 나타났다. 한편 신앙에 의지, 외부 도움요청 등은 적응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표 6, 7)

1)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부부간 갈등

부부 공통적으로 부부간 갈등은 전체 영역에 걸쳐서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p < .001$). 즉 LL가족에서 갈등정도가 가장 높고 HH가족에서 갈등정도가 가장 낮으며 LH가족과 HL가족은 중간정도의 갈등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Lavee & Olson, 1991)와 일치하는 것인데 이로써 가족내에 정서적 유대가 있고 상황적·발달적 요구에 대해 융통성과 적응력이 있는 가족이 부

표 6.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부인의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

변인	가족체계 유형	가족체계 유형				Univariate F
		LL가족	LH가족	HL가족	HH가족	
N		184	34	52	251	
부부간	성생활과 대화	2.65	2.50	1.98	1.82	33.87***
	성격 차	2.86	2.70	2.51	2.09	19.80***
	나쁜 습관	2.12	1.84	1.75	1.46	31.16***
	경계 문제	2.61	2.33	2.05	1.87	31.83***
갈등	자녀 지도	2.77	2.28	2.25	2.04	21.79***
	시가관계	2.22	2.07	1.95	1.84	5.57***
	친정관계	2.38	2.15	1.91	1.85	9.30***
	가치관 차	2.62	2.47	2.11	1.88	30.18***
Multivariate Pillais F=5.63***						
전체	부부간 갈등	98.68	91.23	81.00	71.42	39.25***
대처방안	신앙에 의지	2.42	2.63	2.21	2.29	1.02
	이성적 대처	3.56	3.83	3.76	4.19	21.15***
	행동표출	1.97	1.73	1.68	1.45	21.10***
	외부도움요청	2.44	2.37	2.11	2.20	3.78*
	감정표출	2.74	2.53	2.55	2.51	1.89
	회피	2.84	2.74	2.39	2.29	10.47***
Multivariate Pillais F=5.73***						

* $p < .05$ ** $p < .01$ *** $p < .001$

표 7.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남편의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

변인	N	가족체계 유형				Univariate F
		LL가족	LH가족	HL가족	HH가족	
부부간 갈등						
	성생활	2.48	2.07	2.04	1.55	46.70***
	대화	2.83	2.42	2.22	1.92	40.80***
	성격차	2.54	2.11	2.01	1.75	32.11***
	나쁜 습관	1.93	1.63	1.73	1.35	30.98***
	경제문제	2.31	2.06	1.84	1.60	37.77***
	자녀지도	2.52	2.19	2.09	1.86	25.41***
	본가관계	2.33	2.00	1.98	1.75	11.88***
	처가관계	2.06	1.74	1.77	1.50	20.99***
Multivariate Pillais F=6.78***						
전체	부부간 갈등	90.17	76.76	74.00	62.93	53.81***
대처방안	신앙에 의지	1.77	1.77	1.76	1.82	.11
	이성적 대처	3.45	3.79	3.70	4.13	26.41***
	회피·행동표출	2.46	2.28	2.21	1.87	23.91***
	외부도움요청	2.18	2.21	2.08	1.95	2.82*
	감정표출	2.62	2.48	2.49	2.15	10.13***
Multivariate Pillais F=7.38***						

*p<.05 **p<.01 ***p<.001

부부간의 갈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 차이검증 결과 부인의 경우 LH가족과 HL가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남편의 경우는 두 유형의 가족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변인 변량분석 결과 여러 영역의 부부갈등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으며, 가족체계 유형별로 차이가 큰 갈등영역은 부부 공통적으로 성생활과 대화문제, 경제문제, 남편의 나쁜 습관이고, 이외에 부인집단에서 가치관 차이영역과 남편집단에서 성격차 영역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부부의 대처방안

부부 모두 이성적 대처방안을 HH가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LL가족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였고 LH가족과 HL가족은 중간정도 사용하였다(p<.001). 행동표출과 회피 방안은 부부 공통으로 LL가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HH가족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감정표출은 남편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LL가족의 남편이 감정표출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하위집단별 차이검증 결과 LL가족과 HH가족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고

LH가족과 HL가족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Lavee & Olson, 1991)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가족체계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부부간 갈등 및 일부의 대처방안과 선형적 관계임이 나타났고, 4분면의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부부간 전체갈등과 일부의 대처방안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동일한 결혼생활을 하는 남편과 부인간에 가족체계 유형, 부부간 갈등에 대한 지각이 다르며 대처방안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없어서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부 532쌍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과 대처방안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평균, 백분율, t-test, χ^2 -test, ANOVA, Scheffe-test, MANOVA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부 양방에서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부인이 남편에 비해 응집성을 더 높게 지각하나 적응성은 성별 차이가 없다. 4분면의 가족체계 유형중 HH가족이 47.9%로 가장 많고 LL가족이 35.1%, HL가족이 10.2%, LH가족이 6.8%이었으며 이는 교육수준, 종교 일치여부, 초혼·재혼 여부, 부부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였다.

둘째, 부인이 남편보다 부부간의 갈등을 더 높게 지각한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에 비해 신앙에 의지, 외부에 도움요청, 감정표출, 회피 등의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남편은 부인에 비해 행동표출의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셋째, 가족의 응집성이나 적응성이 높을수록 부부 공통적으로 모든 영역의 부부간 갈등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서 응집성과 적응성이 부부간 갈등 정도와 각각 선형적 관계를 보였다.

네째, 가족의 응집성이나 적응성이 높을수록 부부 공통적으로 이성적 대처방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행동표출과 회피 등의 대처방안은 가장 적게 사용하여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은 부부의 이성적 대처, 행동표출, 회피 등의 일부 대처방안과 선형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가족의 응집성은 부부 양방에서 감정표출의 대처방안과도 선형적 관계를 보였다.

다섯째, 부부 공통적으로 4분면의 가족체계 유형중 LL가족이 부부간 갈등이 가장 많고 이성적 대처방안을 가장 적게 사용하며, 회피와 행동표출 등의 비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반면 HH가족은 부부간 갈등이 가장 적고 이성적 대처방안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비효과적인 대처방안은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LH가족과 HL가족은 부부 공통적으로 부부간 갈등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대처방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 중에서 가족체계 유형별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부부 공통적으로 부부간 갈등이며 그중에서도 성생활 영역과

경제문제 영역에서의 갈등이었으며, 대처방안중에서 이성적 대처와 회피·행동표출이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부들은 가족의 응집성이나 적응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부간 갈등이 적으며, 이성적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고 회피나 행동표출, 감정표출 등의 비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적게 사용한다. 그리고 HH가족이 다른 유형의 가족보다 역시 부부간 갈등이 가장 적으며 이성적 대처방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비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

본 연구는 부부 양방을 대상으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4분면의 가족체계 유형별로 부부간 갈등 정도와 대처방안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다른 단계의 가족에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을 결혼만족이나 우울증 등의 심리적 기능과 연관시켜 분석하는 일과, 청소년 자녀의 응답도 포함시켜 가족체계의 유형에 따른 가족원 각자의 만족도와 심리적 기능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러 가족생활 단계별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며 척도의 타당화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갑숙·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33-143.
- 2)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3) 김양희(1986). 한국 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서울시 거주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4)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5) 박경숙(1993).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중년기 여성이 인지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 6) 박영옥·한상순(198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

- 갈등에 관한 조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33-49.
- 7) 박초아(1989). 청소년기 대학생자녀와 부모간의 가치합의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적응성간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8)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과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8.
 - 9) 안선영(1994).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과 권위유형, 성역할 태도와와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79-92.
 - 10) 안양희(1987). 고등학교 남학생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서킵프렉스모형을 이용하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11)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12) 이숙현·민혜영(1992).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생활과학논집* 6, 215-226.
 - 13) 장병옥·이정우(1986).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5-31.
 - 14) 정민자(1992). 임상-정상 가족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과 대응책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189-218.
 - 15) 전귀연·최보가(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16) 조은경·서병숙(1994). 부모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심리적 거리·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04-116.
 - 17) 최규연(1990).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가정학의 최신정보 III. 아동학·가족학 교문사.
 - 18) 최연실(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과 가족내 심리적 거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59-173.
 - 19) Anderson, S.A.(1986). Cohesion, adaptability and communication : A test of an Olson circumplex model hypothesis. *Family Relations* 35, 289-293.
 - 20) Beavers, W.R. & Voeller, M.N.(1983). Family models :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21) Cohen, S. & Will, T.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22) Elman, M.R. & Gilbert, L.A.(1984). Coping strategies for role conflict in married professional women with children. *Family Relations* 33, 317-327.
 - 23) Farrel, M.P. & Barnes, G.M.(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119-132.
 - 24) Folkman, S.K. & Lazarus, R.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 25) Lavee, Y.(1985). Family types and family adaptation to stress : Integration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s and the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26) Lavee, Y. & Olson, D.H.(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786-798.
 - 27) McCubbin, H.L., Larsen, A.S. & Olson, D.H.(1982). F-COPES : Family coping strategies. In D.H. Olson, H.I. McCubbin, H.L. Barnes, A.S. Larsen, M.J. Muxen & M.A. Wilson(Eds). *Family inventories*. St. Paul : Univ. of Minnesota.
 - 28) Miller, I.W., Epstein, N.B., Bishop, D.S. & Keitner, G.I.(1985).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345-356.
 - 29) Olson, D.H.(1989). Circumplex model : VIII. Famil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 D.H. Olson, C.S. Russell & D.H. Sprenkle(Eds.), *Circumplex model : Systemic assessment and treatment of families*. N.Y. : Haworth Press.
 - 30) Olson, D.H.(1991). Commentary : Three-dimensional(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 74-79.
 - 31) Olson, D.H., Fournier, D.G. & Druckman, J.(1982). *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ENRICH)*.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 32)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L., Larsen, A.S., Muxen, M.J. & Wilson, M.A.(1989).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 33)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L., Larsen, A.S., Muxen, M.J. & Wilson, M.A.(1992). *Family inventories*. St. Paul : Univ. of Minnesota.
- 34) Olson, D.H. & Portner, J.(1982).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FACES) II. Filsinger, E.E.(Ed.). (1983).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 Sage Publications.
- 35) Olson, D.H., Russel, C.S. & Sprenkle, D.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36) Olson, D.H., Sprenkle, D.H. & Russel, C.S.(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ily Process* 18, 3-28.
- 37) Pearlin, L.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38) Smith, D.E.(1985). The relationship of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to family satisfaction : A study of family stress pile up. Ph.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7(3).
- 39) Strauss(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